

고려 왕실의 연례 문화와 청자 주기(酒器)의 상징적 의미: 왕권과 주기(酒器)

김윤정(金允貞)

I. 머리말

II. 왕실 연례의 선행과 주기의 제작 배경

III. 연례용 청자 주기의 조형적 상징성과 함의

IV. 연례용 청자 주기의 용도와 조합의 변화

V. 맺음말

* 본 논문은 2022년에 국립광주박물관에서 개최된 <고려시대 차와 술 문화>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2023년 고려대학교 문화스포츠대학 특성화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부 교수

주요 논저: 「21세기 도자사 연구의 확장 and 다변화」, 『미술사학』 44(2022); 「조선 15세기 중국 북방 자기 문화의 유입과 분청사기에 미친 영향」, 『미술사학연구』 312(2021); The Emergence and Iconography of Seosu (Auspicious Beasts) in the Twelfth-century Goryeo Celadon,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24(2021); 「근대 영국의 한국도자 컬렉션의 형성 과정과 그 의미」, 『문화재』 52(2019).

본고는 조형적으로 일반 그릇과 차별화되는 청자 주기의 형태에 주목하여 왕실 연례 문화와의 관계를 조명하고 조형적 상징성과 시기별 조합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고려사(高麗史)』 세가(世家)에서 확인되는 국왕의 재위별, 연례의 유형별 선행 횟수와 선행 목적을 통해서 청자 주기와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왕실 연례는 군신(君臣)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유대감을 구축하는 왕권 강화의 수단이자 왕의 업적과 성덕을 찬양하여 국왕의 권위와 능력을 보여 주는 통치 행위이기도 하였다. 왕실 연례의 선행 횟수는 실제 왕권 강화를 시도했던 예종대(1105~1122), 의종대(1146~1170), 충렬왕대(1274~1308), 공민왕대(1351~1374)에 늘어나는 상황을 볼 수 있었다. 왕실 연례의 선행이 급증하고 연례 문화가 바뀌는 예종대와 충렬왕대를 기점으로 청자 주기의 기종 및 조형이 변화하는 상황에 주목하였다.

연례에서 국왕과 신하는 다양한 음주 행위를 통해서 국왕의 장수를 기원하거나 태평한 시절을 찬미하였기 때문에 술을 담고 따르는 주기의 조형은 시각적 상징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연례에서 음주 방법은 국왕이 신하에게 또는 신하가 국왕에게 직접 술을 따르기 때문에 주자와 잔의 조형은 참석자들에게 시각적으로 큰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12세기에 신선, 난(鸛), 귀룡, 어룡, 호로병 등의 도교적 소재나 황족유와 같은 유교적 소재가 청자 주자와 잔으로 조형화되는 현상은 국왕에 대한 송축(頌祝)과 충성, 불로장생을 기원하는 연례의 목적이 시각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연례에서 부르는 헌선도(獻仙桃)나 환궁악(還宮樂)의 내용이 청자 주기의 조형과 일치하는 점이 주목되었다. 연례에서 사용하는 당악(唐樂)의 가사는 국왕의 불로(不老), 난로(難老), 장생(長生)을 기원하고 왕업의 번창과 태평성대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가사 내용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 인물형 주자〉나 시카고미술관 소장 〈청자 승난인물형 주자〉 등의 조형에 반영되었다. 주기의 조형에 연례 문화의 일면이 시각화된 사례는 고려청자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주기의 조합은 연례의 분위기나 술의 종류에 따라서 시기별로 변화를 보인다. 고려가 몽골제국으로 편입된 이후에 새로운 술이 유입되고 연례 문화가 변화하면서 주기의 용도와 조합에 큰 변화가 있었다. 충렬왕대부터 원 황실의 영향으로 왕과 공주가 함께 연례를 개최하거나 몽고식 연회인 보르차연[孛兒扎宴]이 열리고 몽고 여인들이 쓰는 고고관(姑姑冠)을 쓰고 연회를 여는 변화를 볼 수 있다. 충렬왕대에 연례 문화가 변하기도 하지만 선행 횟수가 132회로 급증하는 것은 원 황실 공주와의 혼인으로 인한 왕권 강화의 측면도 있다. 급증한 연례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포도주, 동락(潼醪), 소주 등의 새로운 술과 함께 고족배(高足杯), 옥호춘병, 이(匜), 용두잔 등 신기종의 청자 주기가 등장하였다. 새롭게 나타난 청자 주기는 모두 원 황실이나 몽골제국의 일원인 칸국에서 사용된 금속기 등을 모본으로 하여 제작된 것이다. 고려 후기에 청자 주기의 변화는 기존 연구보다 시야를 확대하여 유라시아 일대에 위치했던 칸국들의 잔치 모습이나 주기와 비교하여 좀 더 구체적인 접근을 시

도하였다. 이전에 없었던 고죽배, 이, 용두잔, 옥호춘병 등 새로운 형태의 주기가 유입되었고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청자 주기의 조합과 용도도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상황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양식의 청자 주기는 공간적, 지리적으로 연결될 것 같지 않은 고려와 몽골제국의 칸국을 연결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본고는 청자 주기와 왕실 연례 문화와의 관련성을 조명하였지만 이는 고려청자의 용례를 연구하는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앞으로 좀 더 다양하고 폭넓은 관점에서 청자의 사용처와 사용례를 밝히는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주기, 청자, 왕권, 고죽배, 상형주자, 이(匜), 호병(胡瓶), 종(鍾)

고려 왕실의 연례 문화와 청자 주기(酒器)의 상징적 의미 : 왕권과 주기(酒器)

김윤정(金允貞)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부 교수

I. 머리말

주기(酒器)는 기본적으로 술을 따르는 짐주기(斟酒器)와 입술에 대고 마시는 음주기(飲酒器)가 조합을 이룬다. 고려 중기에는 신선, 난(鸛), 귀룡, 어룡 등 도교적 인물이나 상상의 동물이 술을 따르는 주자로 형상화되고 후기에는 고족배(高足杯)나 이(匜)와 같은 술과 관련된 새로운 기종이 등장하는 등 조형적으로 일반 기종과 차별화되는 예가 많다. 청자 주기의 사용처나 사용례를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최고의 품질로 제작된 사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조형적으로 특이하거나 시기별 변화 양상이 비교적 뚜렷하다는 특징이 있다. 즉, 청자 주기는 특정한 목적을 시각화한 것처럼 독창적인 조형성을 보이거나 유행의 변화를 빠르게 흡수하는 시대성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 청자 주기의 조형적 특징이나 시기별 변화가 왕실의 연례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점에 주목하여서 그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먼저, 『고려사(高麗史)』에 기록된 왕실 연례의 다양한 유형과 실행 목적을 파악하고 국왕의 재위별, 시기별 연례의 실행 횟수를 통해서 청자 주기의 제작 배경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연례는 단순히 술을 마시고 즐기는 모임이 아니라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강력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공식 행사였다. 따라서 『고려사』 세가(世家)에서 확인되는 국왕의 재위별 실행 횟수를 통해서 왕권, 연례, 주기의 상관관계를 파악해 볼 것이다.

다음으로 청자 주기의 조형적 상징성과 시기별 조합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고려청자 주기는 송

대나 원대 주기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중국과 조형적으로 차별화되는 특이한 예가 적지 않다. 따라서 청자 주기에 국왕의 장수, 국왕에 대한 충성,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왕실 연례의 실행 목적이 반영된 조형 요소를 확인하고 그 상징성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왕실 연례에 사용된 청자 주기는 형태별로 용도가 다르고 시기별로 조합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고려 후기에 몽골 제국의 일부로 편입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청자 주기의 조합과 용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왕실 연례의 실행과 주기의 제작 배경

연례는 나라에 경사나 행사 이후에 국왕이 베푸는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잔치로서 다양한 유형으로 실행되었다. 왕실 연례는 단순하게 술을 마시고 노는 모임이 아니라 군신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유대감을 구축하는 왕권 강화의 수단이자 왕의 업적과 성덕을 찬양하여 국왕의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는 통치 행위이기도 하였다. 왕실 연례는 실행 목적과 규모, 성격에 따라서 연(宴), 곡연(曲宴), 치주(置酒), 향(享), 포(酺), 향(饗) 등의 명칭이 사용되었다. 『고려사』 세가에서 확인되는 왕실 잔치의 유형 중에 연, 곡연, 치주, 향(享)은 국왕과 신하들의 잔치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포나 향(饗)은 국왕이 백성들에게 베푸는 잔치의 성격이 짙다.¹ 국왕과 신하들이 모이는 잔치의 실행 횟수를 유형별로 보면 연 491회, 곡연 37회, 치주 60회, 향 89회로 왕실 연례의 91.7%를 차지하여서 군신 간 연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표 1).

표 1. 왕실 연례의 유형별 실행 횟수 (『高麗史』 世家)

| 연례 | 宴 | 曲宴 | 置酒 | 享 | 酺 | 饗 | 계 |
|----|-----|----|----|----|----|----|-----|
| 횟수 | 491 | 37 | 60 | 89 | 14 | 47 | 738 |

『고려사』 세가에서 확인되는 국왕의 재위별, 연례의 유형별 실행 횟수와 실행 목적을 통해서 청자 주기와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다.² 국왕이 신하들과 함께 하는 잔치에서 어떤 장치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를 보면, 왕실 연례의 실행 횟수는 왕권 강화를 시도했던 예종대(1105~1122), 의종대(1146~1170), 충렬왕대(1274~1308), 공민왕대(1351~1374)에 늘어나는 상황을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연례 문화의 양상이 바뀌는 예종과 충렬왕을 기점으로 청자 주기의 제작 양상도 함께 바뀌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1 한정수, 「고려시대 국왕 잔치의 양상과 그 성격」, 『역사교육』 118(2011), pp. 61-78.

2 (표 1), (표 2)는 위의 논문에 제시된 국왕 잔치의 유형에 따른 표 8을 기본으로 참고하였으나, 필자가 본 논문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연례의 유형별, 재위별 횟수도 수정하였음을 일러둔다. 한정수, 앞의 논문(2011), pp. 80-81, (표 8) 참조.

표 2. 고려 국왕의 재위별 연례 설행 횟수

| 재위 \ 유형 | 宴 | 曲宴 | 置酒 | 享 | 계 |
|----------------|------|----|----|-----|-----|
| 太祖(918~943) | 1 | 0 | 1 | 0 | 2 |
| 光宗(949~975) | 2 | 0 | 0 | 0 | 2 |
| 景宗(975~981) | 0 | 0 | 0 | 0 | 0 |
| 成宗(981~997) | 5 | 0 | 0 | 0 | 5 |
| 穆宗(997~1009) | 1 | 0 | 0 | 0 | 1 |
| 顯宗(1009~1031) | 10 | 0 | 0 | 0 | 10 |
| 德宗(1031~1034) | 1 | 0 | 0 | 1 | 2 |
| 靖宗(1034~1046) | 1 | 0 | 0 | 0 | 1 |
| 文宗(1046~1083) | 21 | 1 | 10 | 0 | 32 |
| 宣宗(1083~1094) | 12 | 0 | 2 | 1 | 14 |
| 獻宗(1094~1095) | 0 | 0 | 0 | 0 | 0 |
| 肅宗(1095~1105) | 7 | 2 | 5 | 1 | 15 |
| 睿宗(1105~1122) | 46 | 12 | 12 | 0 | 70 |
| 仁宗(1122~1146) | 31 | 2 | 2 | 1 | 36 |
| 毅宗(1146~1170) | 68 | 13 | 11 | ① | 93 |
| 明宗(1170~1197) | 31 | 1 | 0 | 0 | 32 |
| 神宗(1197~1204) | 2 | 0 | 0 | 0 | 2 |
| 熙宗(1204~1211) | 5 | 1 | 0 | 0 | 6 |
| 康宗(1212~1213) | 0 | 0 | 0 | 0 | 0 |
| 高宗(1213~1259) | 27 | 2 | 0 | ① | 30 |
| 元宗(1259~1274) | 14 | 1 | 2 | ① | 30 |
| 忠烈王(1274~1308) | 56/㉗ | 0 | 4 | ㉓ | 132 |
| 忠宣王(1298) | 7/① | 0 | 0 | ① | 9 |
| 忠宣王(1308~1313) | 2 | 0 | 1 | ⑥ | 9 |
| 忠肅王(1313~1339) | 11/㉘ | 0 | 0 | 1/④ | 26 |
| 忠惠王(1339~1344) | 17/③ | 0 | 5 | ① | 26 |
| 忠穆王(1344~1348) | 9 | 0 | 0 | 0 | 9 |
| 忠定王(1348~1351) | 2 | 1 | 0 | ② | 5 |
| 恭愍王(1351~1374) | 36 | 0 | 1 | ⑥ | 43 |
| 禔王(1374~1388) | 23 | 1 | 1 | 0 | 25 |
| 恭讓王(1388~1392) | 12 | 0 | 3 | 2/⑤ | 22 |
| 계 | 491 | 37 | 60 | 89 | 677 |

* 왕명(王名)(즉위년~퇴위년)

* ○ 안의 숫자는 연례의 주최가 국왕이 아닌 경우임.

12세기에 들어서서 예종을 시작으로 인종, 의종, 명종대까지 이전에 비해 연례의 실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예종은 재위 17년 동안 시도했던 다양한 왕권 강화책 중에서 시사(詩詞)와 연회를 신하들과의 정치적 교감과 소통의 방식으로 활용하였다.³ 왕실 연례의 실행이 급증하는 12세기부터 청자 주기가 최고의 품질과 다양한 조형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도 양자 간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다. 왕실 연례에서 청자 주기가 사용된 모습은 1123년에 고려에 왔던 서공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서공은 국왕이 주최한 연례에서 술은 달고 빛깔이 진하며 과일, 채소, 양, 돼지, 해산물이 풍성하였고 도금이나 은기뿐만 아니라 청자[청도기]가 귀하게 사용되었음을 언급하였다.⁴

13세기에는 연례의 실행이 미미하다가 충렬왕대에 다시 132회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점도 원 황실 공주와의 결혼으로 인해서 강력해진 왕권과 관련되는 현상이다. 이때부터 원 황실 공주가 연례의 주최자로서 국왕과 동등한 비중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전에는 왕비나 후비가 연례의 주최자로 등장한 경우가 없지만 충렬왕대부터 공주가 왕과 함께 연례를 열거나 단독으로 주최하는 경우가 확인된다. 공주가 왕실 연례의 주최자로 등장하는 것은 원 황실의 영향으로 몽골제국 하에 있던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황후나 왕비[Khātūn]가 연회에 참석하여서 왕과 함께 나란하게 앉아 있는 모습은 몽골제국 내에서 여자의 정치적 역할과 위상이 높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⁵

이 시기에는 신하들이 왕을 위해서 연례를 개최하는 변화를 볼 수 있다. 충렬왕대에 실행된 132회의 연례 중에 약 54%에 해당하는 72회가 신하들이 개최한 연례이다. 국왕이 아니라 신하가 주최하는 연례 방식은 충렬왕대 이후에 보이는 새로운 경향이다. 충렬왕 이전에 국왕이 아닌 사람이 향연(享宴)을 주최하는 경우는 모두 세 번 확인된다. 1167년(의종 21)에는 왕의 동생, 1249년(고종 36)에는 최항(崔沆), 1273년(원종 14)에는 부다루가치 초천익(焦天翼)이 왕을 위해서 향연을 열었다.⁶ 의종과 고종대에는 왕의 동생이나 최항 같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다면 1273년에 부다루가치는 원나라의 관리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충렬왕대 연은 73회 중에 17회 정도가 쿠치(忽赤)나 신하들이 왕을 위해 마련한 잔치로 파악되었다. 특히 연례의 유형 중에 향은 55회 모두 다루가치(達魯花赤), 쿠치, 재추, 내고(內庫) 관리 등 신하가 왕을 위해서 개최한 잔치였다. 특히 1301년, 1302년 이후에 이러한

3 김병인, 「고려 예종의 통치행위에 나타난 유형적 특징과 그 정치적 배경」, 『역사와 경계』 79(2011), pp. 40-42.

4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卷26, 燕禮 燕儀, “燕飲之禮, 供張帘幕之屬, 悉皆光麗. 堂上施錦茵, 兩廊藉以綠席. 其酒味甘色重, 不能醉人. 果蔬豐腴, 多去皮核. 肴饌雖有羊豕, 海錯而勝之. 卓面覆以紙, 取其潔也. 器皿, 多以塗金, 或以銀, 而以青陶器爲貴.”

5 Mehreen Chida-Razvi, “Power and Politics of Representation: Picturing Elite Women in Ilkhanid Painting,”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1), pp. 1-25; 張楠·賈陳亮, 「蒙元后妃宴禮探析」, 『內蒙古民族大學學報』 第4期(2012), pp. 10-12.

6 『高麗史』 卷18, 世家 卷第18 毅宗 21年 4月; 同書, 卷23, 世家 卷第23 高宗 36年 1月; 同書, 卷27, 世家 卷第27 元宗 14年 8月.

연례가 상례화되었고, 이와 관련된 연례용 청자가 제작되었다.⁷ 대표적인 예가 홀지(忽只), 내시(內寺) 등이 상감된 일군의 명문청자이며, 이들은 대부분 국왕의 측근 세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충렬왕대 이후에 신하가 국왕을 위해 연례를 여는 방식은 고려 후기의 정치적인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국왕이 연례를 설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통치 행위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왕실 연례에서 술을 마실 때 신하들의 건배사는 국왕의 불로(不老), 난로(難老), 장생(長生)을 기원하고 왕업의 번창과 태평성대의 시절을 만든 국왕의 위업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시사(詩詞)와 같은 글짓기와 음악이었다. 왕실 연례에서 사용된 당악은 송대 성행하는 문학 장르인 '사(詞)'에 음률을 붙인 궁중 음악이다. 당악의 가사에는 봉황, 난새, 공작, 신선, 단약, 선도, 봉래산 등의 도교적 요소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서 국왕에 대한 송축과 불로장생을 기원하고 태평성대의 모습을 표현하였다.⁸ 특히, 예종은 사작(詞作)을 좋아했다고 하는데, 악지에 실린 '만년환'은 1115년에 신하들과 함께한 연회에서 예종이 지은 '만년사(萬年詞)'에 음률을 붙인 것이다.⁹ 만년환의 가사도 삼청전, 난새, 신선 등의 도교적 소재를 이용하여 좋은 정치가 행해지는 태평한 시절을 찬미하고 임금이 신선같이 장수하기를 축원하는 내용이다. 연회를 마칠 때 부르는 야심사(夜深詞)도 술이 잔에 넘쳐서 임금과 신하가 함께 태평시절에 취한다는 내용이다.¹⁰

도교적 소재 외에 유교 경전을 인용한 시나 사에서도 국왕의 선정(善政)으로 인한 태평성대의 시절을 찬미하는 예가 적지 않다.¹¹ 예종과 인종연간에 유교적 예서인 『시경(詩經)』이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궁중 연례에서 비중이 커지는 상황을 볼 수 있다. 예종연간에는 태평성대와 국왕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유교 경전인 『시경』의 반수(泮水), 녹명(鹿鳴) 편 등을 인용하여 표현하였다.¹² 의종 24년(1170)에 화평재에서 신하들을 위한 잔치를 열었는데, 여러 신하들이 왕의 성덕을 찬양하며 태평성대에 글을 좋아하는 임금이라고 칭송하고 있다.¹³ 『시경』이 아니더라도 당대(唐代) 시인 백거이의 작품인 '하처난망주(何處難忘酒)'는 예종이 도교에 심취했던 광역(1058~1130)과 주고 받은 시에서도 인용될 정도로 시문학이 왕실 문화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¹⁴ 따라서 국립중앙

7 김윤정, 「고려말·조선초 명문청자 연구」(고려대학교 고고미술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pp. 113-117; 『高麗史』卷32, 世家 卷第32 忠烈王 28年 6月, “王之幸壽康宮也, 宰樞·將軍房·忽赤·內房庫·內僚, 輪日設宴, 後以爲常.”

8 이정노, 「고려중기 당악정재의 유입 배경과 도교적 양상」, 『한국체육학회지』 59(2020), p. 292.

9 『高麗史』卷14, 世家 卷第14 睿宗 10年 3月, “壬午 宴群臣于乾德殿, 賦萬年詞, 宣示左右.”; 同書, 卷71, 志 卷第25, 樂 2 唐樂 萬年歡.

10 『高麗史』卷71, 志 卷第25 樂 2 俗樂 夜深詞, “酒盈觴, 君臣, 君臣, 共醉太平年.……夜深詞言君臣相樂之意, 皆於終宴而歌之也.”

11 임주탁, 「고려 후기 궁중 문화와 고려가요」, 『정신문화연구』 21-4(1998), pp. 62-66.

12 『高麗史』卷96, 列傳 卷第9 諸臣 金仁存.

13 『高麗史』卷19, 世家 卷第19 毅宗 24年 5月.

14 李仁老, 『破閑集』卷中, “郭處士瑍, 睿王在春宮時寮佐也……製何處難忘酒一篇…….”

박물관 소장 <청자상감 국화문 병>(본관1986)에 ‘하치난망주’와 같은 시가 상감되는 현상도 12세기 이후에 시문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왕실 문화가 연례용 청자 주기에 반영된 예라고 할 수 있다.

연례에서 왕이 신하에게 술을 따라 주면서 권하거나[권주(勸酒)], 반대로 신하들이 국왕에게 술을 올리고[진주(進酒)], 국왕에게 감사함을 아뢰고 술잔을 비우거나[고지이졸작(告旨而卒爵)], 잔을 주고받고[헌주(獻酬)], 잔을 돌리는[행주(行酒)] 등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예종이 1117년에 청연각에서 잔치를 열었을 때 술잔이 아홉 번 돌았고,¹⁵ 서궁은 연례에서 술을 열다섯 차례 주고받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십여 차례 돌고 밤중이 돼서야 마쳤다고 하였다.¹⁶ 결과적으로 연례에서 이러한 행위는 군신 간의 위계를 확립하고 유대감을 형성하여 왕의 절대적인 권한과 권위를 보여주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국왕과 신하 간의 음주 행위를 통해서 국왕의 장수를 기원하고 태평한 시절을 찬미하였기 때문에 술을 담고 따르는 주기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 시사의 글짓기와 당악의 노래가 연례의 설행 목적을 소리로 드러냈다면 주기는 상징적 이미지가 반영된 시각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즉, 청자 주기의 조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국왕이 왕권 강화를 위해 연례를 설행하는 목적을 주기에 어떻게 표현하고 구체화하였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 장에서 연례의 설행 목적이 청자 주기의 조형에 반영된 구체적인 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례용 청자 주기의 조형적 상징성과 함의

왕실 연례용 주기는 술을 따르는 행위에 많은 의미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술을 따르는 짐주기(斟酒器)와 마시는 음주기(飲酒器)가 한 벌로 구성되었다. 국왕이 군신들에게 베푸는 잔치에서 ‘태자가 술잔을 받들고 상공은 주자를 받들어 술을 따라 올려서 국왕이 술잔을 들면 음악이 시작되고 술을 다 마시면 음악이 멈추는 모습’을 볼 수 있다.¹⁷ 연례에서 음주 방법은 국왕이 신하에게 또는 신하가 국왕에게 직접 술을 따르기 때문에 주자와 잔의 조형은 참석자들에게 시각적으로 큰 효과가 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 인물형 주자>(신수3325)나 시카고미술관 소장 <청자 승난인물형 주자>는 특정한 형상을 주기로 조형화한 대표적인 예이다. 상형청자 주자는 시각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 청자 주자에 표현된 인물은 모두 소매 끝에 새 깃털이 장식되어 있는데 이는 신선이 입는 복식의 특징이다. 이러한 예는 923년에 제작된 요대

15 『高麗史』卷96, 列傳 卷第9 諸臣 金仁存, “……左右再拜, 告旨而卒爵, 或獻或酬, 和樂孔皆, 及觴酒九行…….”

16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卷26, 燕禮 獻酬, “酒十五行, 乃中休于次, 少頃, 再就坐, 自使副而下, 送襲衣金銀帶, 各有差, 酒再十餘行, 夜分乃罷.”

17 『高麗史』卷68, 志 卷第23 禮 10 嘉禮 大宴, “……太子奉盞, 上公奉注子, 酌酒, 王舉盞, 樂作, 舉酒訖, 樂止.”



도 1. 청자 인물형 주자, 고려 12세기, 높이 28.0cm, 국립중앙박물관(신수3325)



도 1-2. 청자 인물형 주자의 세부 모습



도 2. 청자 승난인물형 주자, 고려 12세기, 높이 21.4cm, 미국 시카고미술관

벽화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서왕모와 선녀들의 복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¹⁸ 도사를 지칭하는 우객(羽客), 우류(羽流), 우사(羽士), 우인(羽人) 등의 명칭은 모두 새 깃털과 관련되는데, 하늘을 나는 선인(仙人)을 비유한 것이다.

〈청자 인물형 주자〉는 구름을 타고 온 신선이 무릎을 꿇고 불로장생의 열매인 선도(仙桃)를 바치는 모습이다(도 1). 주자의 조형을 구성하는 요소가 『고려사』 악지(樂志)의 헌선도(獻仙桃)의 내용과 동일한 점이 주목된다. 연례에서 부르는 ‘헌선도’는 서왕모가 태평성대와 임금의 천만 년 장수를 기원하면서 신령한 복숭아인 선도를 바치는 내용이다.¹⁹ 송대 편찬된 『태평광기(太平廣記)』에는 “서왕모가 한무제의 궁에 가져온 선도는 일곱 개였고 오리알 정도의 크기로 둥글고 푸른빛이었다”라고 묘사되어 있다.²⁰ 〈청자 인물형 주자〉에 표현된 일곱 개의 푸른빛 복숭아는 『태평광기』에 묘사된 3천 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 선도를 완벽하게 시각화한 것이다(도 1-2). 선도를 바치는 신선의 소재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투각 연화동자문 주자〉(덕수443, 덕수445)의 뚜껑에서도 볼 수 있다.

미국 시카고미술관 소장 〈청자 승난인물형 주자〉의 조형도 연례에서 부르는 ‘환궁악(還宮樂)’의 내용과 일치한다(도 2). 환궁악은 봉래산에서 난새를 타고 온 신선이 장수의 묘약인 선단을 바치고 임

18 Kim Yunjeong, “The Influence of Taoism on Goryeo Celadon,” *JOURNAL OF KOREAN ART & ARCHAEOLOGY* 6 (2001), pp. 56–59.

19 『高麗史』卷71, 志 卷第25 樂 2 唐樂 獻仙桃. 헌선도에서 부르는 〈元宵嘉會詞〉, 〈日暖風和詞〉의 가사는 모두 국왕의 장수와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내용이다.

20 李昉, 『太平廣記』卷3, 神仙 3 漢武帝, “王母自設天廚, ……又命侍女更索桃果, 須臾, 以玉盤盛仙桃七顆, 大如鴨卵, 形圓青色, 以呈王母, 母以四顆與帝, 三顆自食, 桃味甘美, 口有盈味.” 북송 초 태종의 명으로 978년에 편찬된 『太平廣記』는 종교 관계 이야기와 역사서에 실리지 않은 기록 및 소설류를 모아 李昉 등이 편찬하였으며, 神仙, 女仙, 道術, 方士 등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太平御覽』, 『冊府元龜』, 『文苑英華』와 더불어 송대 사대서로 알려져 있다.



도 3. 청자 난새형 주자, 개성 부근 출토, 고려 12세기, 높이 22.7cm, 국립중앙박물관(덕수5202)

금의 수명이 만년[성수만년(聖壽萬年)]에 이르기를 기원하는 내용이다.²¹ 당·송대 편찬되는 『용성집선록』이나 『태평광기』에는 ‘지위가 높은 신선은 난새를 타고, 다음은 기린이나 용을 탄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²² 13세기 초에 활동했던 문인 이윤보(李允甫)의 시에도 신선이 난새를 타고 오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으며 당시 이러한 조형이 왕실과 문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²³ 〈청자 승난인물형 주자〉는 신선이나 난새와 같이 장수를 상징하는 도교적 요소가 조형화되어 왕실 연례용으로 제작되었다. 왕실의 여러 잔치에서도 ‘천만세수주(千萬歲壽酒)’를 외치고 왕의 장수를 기원하며 술을 올리는 신하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²⁴ 일본 대마도(對馬島) 기사카 가이진신사[木坂海神社]에도 유사한 조형의 청자 주자가 전

해지고 있어서 고려 중기에 도교적 소재가 청자 주자의 조형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²⁵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두 점의 〈청자 새모양 주자〉(덕수5202, 덕수2775)에서 풍만한 몸체와 머리 위에 관(冠)의 표현은 일반적인 새의 형상이 아니다. 특히 도 3의 청자 주자는 전면에 풍성하게 표현된 깃털과 몸체 양면에 부착된 날개 등의 표현은 시카고미술관 소장 주자와 유사하여 난새의 형상을 조형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장수의 선단을 바치는 신선 대신에 표주박 모양의 호로병(葫蘆瓶)을 등에 지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호로병은 신선의 세계에서 몸이 가벼워지고 맑게 정신을

21 『高麗史』卷71, 志 卷第25 樂 2 唐樂 還宮樂; Kim Yunjeong, “The Emergence and Iconography of Seosu (Auspicious Beasts) in the Twelfth-century Goryeo Celadon,”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24-1(2021), pp. 98-99.

22 杜光庭, 『墉城集仙錄』卷10, 謝自然, “每天使降時, 鸞鶴千萬, 衆仙畢集, 位高者乘鸞, 次乘麒麟, 次乘龍, 鸞鶴每翅各大丈餘.”(『正統道藏』中第560~562册); 李昉, 『太平廣記』卷66, 女仙 11 謝自然, “每天使降時, 鸞鶴千萬, 衆仙畢集, 位高者乘鸞, 次乘麒麟, 次乘龍.”(『欽定四庫全書』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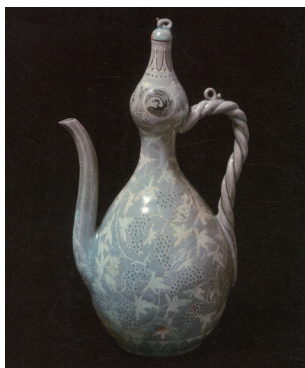
23 崔滋, 『補閑集』卷中, 李史館允甫夜直, 與陳玉堂澤, 賦遊月宮篇云, “玉女乘鸞庭下列…….”

24 『高麗史』卷65, 志 卷第19 禮 7 嘉禮 冊太后儀 宴群臣條; 同書, 冊王妃儀 百官朝賀; 同書, 卷66, 志 卷第20 禮 8 嘉禮 冊王太子儀 王會群臣條; 同書, 卷67, 志 卷第21 禮 9 嘉禮 元會儀, 王太子節日受宮官賀並會儀; 同書, 卷68, 志 卷第23, 禮10, 嘉禮 大宴; 同書, 卷69, 志 卷第23, 禮 11 嘉禮雜儀, 上元燃燈會 大會日坐殿條; 同書, 仲冬八關會儀 坐殿受賀條, 大會日坐殿條.

25 國立歷史民俗博物館, 『東アジア中世海道』(東京: 毎日新聞社, 2005), p. 68. 가이진신사에 소장된 〈청자 승난인물형 주자〉는 인물의 머리, 난새의 주둥이, 관, 꼬리 부분이 파손된 상태이지만 난새를 타고 온 신선의 모습으로 보인다.



도 4. 은제도금 신선문 향합, 고려 12세기, 지름 5.6cm, 국립중앙박물관(신수15082)(선은 필자)



도 5. 청자상감 포도동자문 표형주자 세부, 고려 13세기, 높이 38.5cm,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개는 묘약을 넣는 용기로 사용되었다.²⁶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은제도금 신선문 향합〉에서도 신선과 관복을 입은 관리가 바둑을 두고 있고, 그 오른쪽에 호로병을 안고 있는 동자가 묘사되어 있다(도 4). 당시 사람들에게 호로병 안에 담긴 술은 신선의 묘약과 같은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1306년(원대덕 10) 무덤 천정에도 태양 속 삼족오(三足鳥)와 달 속에 옥토끼가 있고 그 주변으로 구름과 학, 팔선(八仙)이 묘사되었는데, 그중에 호로병을 들고 있는 이철괴(李鐵拐)의 모습을 볼 수 있다.²⁷

호로병은 청자 주자에서 많이 보이는 기형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상감 연당초문 시명표형병〉(덕수2857)이나 〈청자음각 포도당초문 표형병〉(덕수3270) 등의 예가 있다.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소장 〈청자상감 포도동자문 표형주자〉에 표현된 삼족오, 방아에 묘약을 찢고 있는 옥토끼, 구름, 학의 문양에서도 신선들이 사는 천상 세계의 이미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도 5). 김극기(金克己, 1150~1204)는 ‘난새가 하늘에서 내려와 황제의 조서를 내리고 토끼가 달 가운데 방아를 찢어 옥합에 신묘한 선단을 보내 주어서 목은 병이 몸에서 사라졌다’고 임금의 하사한 조서(詔書)와 약물(藥物)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였다.²⁸ 이러한 내용을 볼 때, 고려 왕실과 문인들의 도교적 성향이 청자 주자의 조형 소재로 차용되어 시각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 어룡형 주자〉(개성2)는 용의 얼굴과 물고기의 몸체가 합쳐져서 주자

26 李昉, 『太平廣記』卷37, 神仙 37 賣藥翁, “常提一大葫蘆賣藥, 人告疾求藥, 得錢不得錢, 皆與之無阻, 藥皆稱有效(매약 용은 항상 큰 호리병을 하나 들고 다니면서 약을 팔았는데 사람들이 병을 말하고 약을 구하면 돈을 얻든지 말든지 모두 거리낌 없이 약을 주었으며 그 약은 모두 효험이 있다고 하였다)”; 同書, 卷46, 神仙 46 劉商, “乃開囊視, 重紙裹一葫蘆子, 得九粒藥如麻粟, 依道士口訣吞之, 頓覺神爽不饑, 身輕飄然(주머니를 열고 보았더니 겹겹이 종이로 싸인 호로박 안에는 마치 참깨나 조와 같은 아홉 알약이 있었다.……약을 삼키자 바로 정신이 상쾌해지면서 배고픔이 사라지고 몸은 가벼워지며 맑게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27 楊林中, 「山西屯留縣康庄工業園區元代壁畫墓」, 『考古』12期(2009), pp. 42-43.

28 『東人之文四六』卷9, 陪臣表狀 謝賜詔書兼藥物表, “鸞迴天上, 泥函垂帝詔之溫, 兔擣月中, 玉合降仙丹之妙, 沈痾去體, 喜氣填胸.”; 金克己, 『東文選』卷35, 表箋 謝賜詔書 兼藥物表.



도 6. 청자 어룡형 주자, 고려 12세기, 높이 24.4cm, 국립중앙박물관(개성2)



도 7. 청자퇴화 연화당초문 주자, 고려 12세기, 높이 33.8cm, 국립중앙박물관(동원1257)

로 조형화된 예이다(도 6). 어룡에 대한 인식은 숙종대(재위 1096~1105)와 예종대(재위 1105~1122)에 국왕의 측근으로 활약했던 김위제(金謂禪, ?~?)와 은원충(殷元忠, ?~?)의 남경(南京) 천도설에서 볼 수 있다. 이들은 “남경으로 천도하여 한강 북쪽에 터를 잡으면 왕업이 영원하고 온 천하가 와서 조공을 바치고 왕족이 번창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한강의 어룡(魚龍)이 사해(四海)까지 통하고 사해의 신어(神魚)가 한강에 모이니 나라가 태평하고 사람들은 편안하여 태평성대를 이룬다”라고 주장하였다.²⁹ 당시 어룡이 도교적 세계관에서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신어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자 주자에 표현된 어룡이나 귀룡은 모두 활짝 핀 연꽃 위에 놓이는 모습을 공통적으로 보인다. 거북이가 연잎이나 연꽃 위에 앉아 있는 형상은 중국 고대에 하늘이 내린 상서, 즉 영귀(靈龜)로 인식되어서 양생(養生)과 장수를 상징하였다.³⁰

어룡이나 귀룡 외에도 동자, 사자, 원숭이, 봉황 등이 연꽃 위에 앉거나 서 있는 형상을 청자 주자의 뚜껑에서 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퇴화 연화당초문 주자〉의 뚜껑은 연꽃 위에 봉황의 형상이며, 이와 유사한 조형은 청자나 금속기 등에서 확인된다(도 7).³¹ 연꽃 위에 서 있는 봉황의 모습은 『영조법식』에 도해진 궁궐 장식이나 보스턴미술관 소장 〈치성광여래왕립도〉에서 여래의 뒤쪽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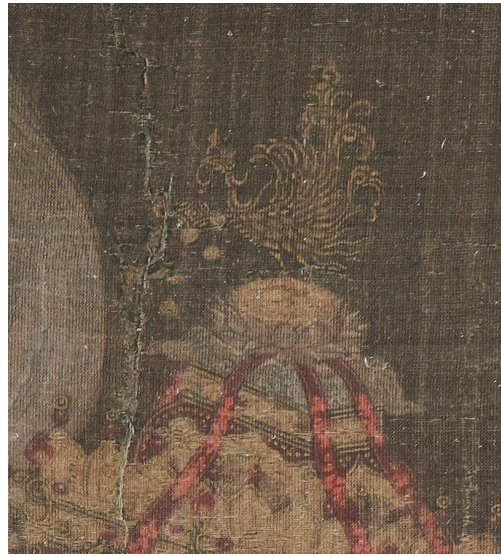
29 『高麗史』卷122, 列傳 卷第35 方技 金謂禪, “臣又竊觀道詵踏山歌曰, 松城落後向何處, 三冬日出有平壤, 後代賢士開大井, 漢江魚龍四海通……四海神魚朝漢江, 國泰人安致太平……睿宗時, 殷元中亦以道詵說, 上書言之.”

30 揚之水, 『銀龜遊蓮葉雙層盞』, 『奢華之色—宋元明金銀器研究』第三卷(北京: 中華書局, 2011) pp. 52~53.

3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음각 화문 주자〉(본관8920), 미국 프리어갤러리 소장 〈청자음각 화문 주자〉(F1907.286a-b), 미국 보스턴미술관 소장 〈은제도금 화문 주자〉(35.646.1a-d) 등이 알려져 있다.



도 8. 『영조법식』 권32, 雕木作制度圖樣 混作第一 ‘鳳凰’, 북송 1100년



도 9. 차성광여래도 부분, 고려 14세기, 114.5×55.6cm, 보스턴미술관



도 10. 수월관음도 하단에 묘사된 공양물을 바치는 모습(선은 필자), 고려 14세기, 114.5×55.6cm,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도10-1. 도 10의 권속이 안고 있는 공양구(선은 필자)

세워진 받침에서 장엄 요소로 활용되었다(도 8, 9).³² 왕실 주기에 표현된 연꽃 위에 봉황은 고려 왕실의 장엄 요소이면서 극락왕생과 연화화생이라는 불교적 상징성도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 후기에 등장하는 편병도 불보살의 공양구로 묘사된 예가 있어서 편병이 왕실 주기로 사용되는 배경에 불교와의 관련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편병은 13세기 후반부터 14세기까지 용봉문이 구성되거나 금채가 장식되고, 양온(良醞)이라는 명문이 상감되는 등 왕실용 주기로 제작되었다. 메트

32 李誠 撰, 『營造法式』 卷32, 雕木作制度圖樣 混作第一, “鳳凰”(文淵閣『欽定四庫全書』); 신숙, 『고려시대 ‘찬란한’ 금속공예: 보스턴미술관 소장 〈은제도금 주자와 승반〉』, 『미술사학연구』 302(2019), pp. 138–139; 『영조법식』은 북송대 이계가 1100년에 편찬한 건축설계 및 공정에 관련된 저술이며, 1103년에 반포되었다.



도 11. 청자상감 연류문 '양원'명 편병, 개성 부근 출토, 고려 14세기, 높이 30.3cm, 입지름 8.5cm, 국립중앙박물관(덕수1082)

로폴리탄미술관 소장 <수월관음도>의 하단에 묘사된 공양물을 바치는 용왕과 용녀를 비롯한 일군의 무리들 속에서 권속이 안고 있는 큰 항아리가 편병과 유사하여 주목된다(도 10). 이 항아리는 넓은 주둥이와 몸체가 편병과 유사하고 무엇보다 몸체에 선명하게 장식된 능화형 화창, 어깨에 여의두문대, 하단에 연판문대 등이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에 제작되는 편병의 문양 구성과 동일하다(도 10-1, 11). 고려 불화에서 정병이나 발 등의 공양구가 표현된 경우가 적지 않지만 문양 형태와 구성까지 묘사한 예는 드물다. 청자 편병이 왕실의 주기이면서 장엄의 세계에서 사용된 공양구로서의 이중적 이미지를 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두 점의 <청자 규화잔>(덕수3766, 덕수3272)은 규화형 청자 잔 중에서 조형

성과 크기에서 독보적인 예이다(도 12). <청자 규화잔> 두 점은 기형, 문양 구성, 크기, 변조받침 등이 거의 유사하여 동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왕실 청자의 제작지였던 강진 사당리요지에서 규화배의 초벌편이 출토되었다.³³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 규화잔>은 청자나 금속기로 제작된 일반적인 규화잔에 비해 약 1.5~2배 정도로 크기가 커서 국왕의 주기로 특별하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³⁴

규화는 촉규(蜀葵) 또는 황촉규를 의미하며, 임금에 대한 충(忠)을 상징하여서 송대 그림이나 시사의 소재로 사용되었다.³⁵ 최유청(崔惟淸, 1093~1174)이 1130년에 작성한 고주표나 김부식(1075~1151)의 표문 등 여러 기록에서 규화가 해를 향한다는 문구가 확인되어 이미 고려 12세기 초부터 충을 의미하는 소재로 인식되고 있었다.³⁶ 김부식이 1135년에 서경[평양]에서 일어난 묘청의 난을 평정하였고 이를 치하(致賀)하는 인종의 교서가 내려졌다. 최함(崔咸, 1094~1160)이 작성한 인종 교서의

33 강대규·장성욱, 『강진 사당리 발굴조사 보고서』(국립중앙박물관, 2015), p. 107, pl. 187.

34 <청자 규화잔>(덕수3766)은 높이 7.4cm, 입지름 19.0cm로, 보스턴미술관 소장의 <청자 규화잔>이 높이 4.8cm, 입지름 9.2cm, 사천성 팡주 남송 교장 출토 <은제 규화잔>이 높이 5.2cm, 입지름 12.3cm인 것에 비해 1.5~2배 정도 큰 크기이다.

35 고연희, 「忠을 상징한 영모화초-葵花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와 예술』 21(2017), pp. 92-103.

36 『高麗史』卷16, 世家 卷第16 仁宗 8年 12月, “葵藿之志, 向日以長傾……”; 同書, 卷21, 世家 卷第21 神宗 卽位年 10月, “鶴鳴于臯, 尚有可聞之響, 葵傾於日, 豈無委照之私……”; 『東人之文四六』卷4, 事大表狀 告奏表 崔惟淸; 『東人之文四六』卷12, 表 辭恩命表 金富弼, “……葵藿之誠猶在, 豈敢怠於傾依”; 李奎報, 『東國李相國集』卷11, 古律詩 嘲折足鍾, “衛足不如葵”; 同書, 卷14, 古律詩 和友人黃蜀葵, “露重偏憐金盞側.”



도 12. 청자 규화잔, 개성 부근 출토, 고려 12세기, 높이 7.4cm, 입지름 19.0cm, 국립중앙박물관(덕수3766)



도 13. 금제 규화잔, 남송, 安徽省 休寧 朱晞顔(1135~1200) 무덤 출토, 높이 5.0cm, 입지름 10.6cm, 안휘박물관

말미에 있는 김부식에게 하사하는 물품 목록 중에 ‘순금제 규화잔’ 2개가 포함되어 있다.³⁷ 동일한 내용의 하사품이 『고려사』에는 의복, 안마, 금대, 금주기, 향약으로 기록되어 있다.³⁸ 하사품 중에 금주기는 순금규화잔을 의미하여서 1136년에 이미 규화잔이 왕실의 주기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규화잔이 임금에 대한 충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묘청의 난을 평정한 김부식에게 특별한 하사품으로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충렬왕과 공주가 1294년에 원 성종의 즉위식에서 바친 화려한 물품 목록 중에도 은루규화잔(銀鑲葵花盞)이 포함되어 있어서 13세기에도 왕실 주기로 사용되고 있었다.³⁹

중국에서 규화잔은 안휘성(安徽省) 휴령(休寧) 주희안(朱晞顔, 1135~1200) 무덤 출토 〈금제 규화잔〉, 사천(四川) 팡주(彭州) 남송대 교장 출토 〈은제 규화잔〉, 흑룡강성(黑龍江省) 합이빈시(哈爾濱市) 금대 무덤 출토 〈은도금 규화잔〉 등이 알려져 있다.⁴⁰ 규화잔은 모두 5장에서 6장의 꽃잎이 방사형으로 퍼지고 내면 가운데 돌출된 꽃술이 특징이지만 잔의 외면이나 세부 표현에 차이가 있다.

37 崔瀼, 『東人之文四六』 卷6, 回元帥金富軾平西獻捷 崔誠 賜元帥金富軾物幅, “幘頭一頂, 紫羅夾襖校勘, 衣一對, 紫金羅夾公服一領, 緊絲夾襖子一領, 白綾汗衫一領, 紅羅地繡三檐一條, 紅羅地繡胞肚一條, 白綾綿襖頭袴一腰共用黃絹複黃綾托裏土藤箱一副盛 紫羅夾襖全, 金腰帶一條, 錦袋具金花銀匣盛 紅羅夾襖全 匣重四十兩, 朝靴一緇黃絹複全, 純金葵花盞二隻共重一十一兩, 白銀合一副重二十五兩 盛丁香三十兩荷莎六十兩 紫羅夾襖全, 銀紫羅地繡鞍轡一副紫羅地繡鞍襖全, 細馬一疋.”

38 『高麗史』 卷16, 世家 卷第16, 仁宗 14年 3月, “己巳 遣左承宣李之氏, 殿中少監林儀下詔, 獎諭征西將帥, 賜金富軾衣服·鞍馬·金帶·金酒器·香藥, ……”

39 『高麗史』 卷31, 世家 卷第31 忠烈王 20年 4月, “王與公主獻金盞·銀鑲葵花盞各一副, 金瓶·金鏤銀尊·壺·湯瓶·酒瓶各一事, 半鏤銀尊·胡瓶各一事, 銀盃八十一事, 銀鍾十八事, 紫羅九匹, 細苧八十六匹, 豹皮十八領, 水獺皮八十一領, 以充庭實.”

40 揚之水, 『宋元金銀酒器中的盤盞散盞與屈卮』, 『收藏家』 2期(北京: 北京市文物局, 2008), pp. 61-62.



도 14. 청동 치, 고려, 높이 7.6cm, 입지름 14.9cm,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도 15. 청자상감 운학문 고족배, 고려 14세기, 높이 12.7cm, 입지름 14.4cm, 고려청자박물관

고려의 <청자 규화잔>과 가장 유사한 예는 주희안 무덤에서 출토된 <금제 규화잔>이다(도 13). 두 작품은 모두 외면에 꽃잎의 음각선만 있고 내면에는 꽃잎마다 넓은 테를 두르고 그 안에 다시 황촉규를 부조로 표현하였다(도 12, 13). <청자 규화잔>의 조형이 기존에 남송대 팽주 교장 출토품과 비교되었지만 주희안 무덤 출토품과 더 유사하다는 점에서 좀 더 고식(古式)의 북송대 금속기를 모본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북송 황실의 행궁(行宮)에서 사용한 <은제 규화반>이나⁴¹ 소문사학사(蘇文四學士) 장뢰(張耒, 1054~1114)가 은규화를 주기로 사용한 기록 등을 볼 때, 북송대 황실이나 문인들이 애용한 규화잔이 이미 12세기 초에는 고려에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⁴²

IV. 연례용 청자 주기의 용도와 조합의 변화

주기는 기본적으로 술을 따르는 짐주기(斟酒器)와 입술에 대고 마시는 음주기(飲酒器)가 조합을 이룬다. 『고려사』 등 문헌기록에서 확인되는 짐주기는 주자(注子), 주자(酒子), 준(尊), 주병(酒瓶), 호병(胡瓶), 음주기는 잔(盞), 배(杯), 종(鍾), 쥬(觥), 작(爵), 상(觴), 치(卮), 근(罇) 등 다양하지만 그 용도와 조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벌주(罰酒)나 연례 등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음주기는 일반적인 술잔과 형태와 크기에서 차별화된다.

벌주잔은 술잔의 크기가 다른 잔보다 큰 것을 사용하였다. 충렬왕 9년(1283)에 연례에서 여러 신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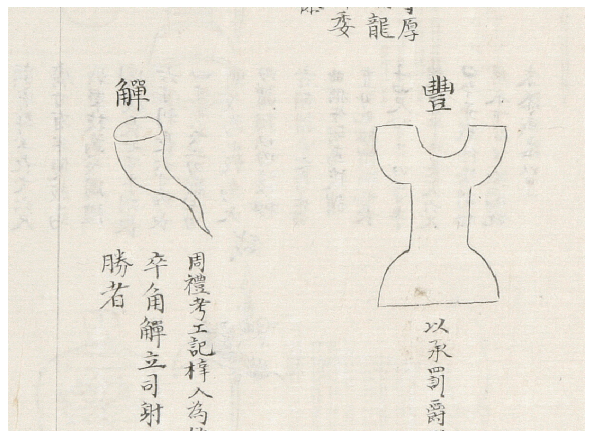
41 洛陽市第二文物工作隊, 『洛陽邙山宋代壁畫墓』, 『文物』 第12期(北京: 文物出版社, 1992), pp. 37~51. 반의 외면에서 '行宮公用葵花盤貳面共重捌兩'의 명문이 확인되었다.

42 錢功 撰, 『澹山雜識』 蠅子水心亭, "張文潛喜飲酒, 能及斗餘, 每過先君, 未嘗不醉. 吾家酒器惟銀葵花最大, 幾容一升." (陶宗儀 纂, 『說郛』 卷第28.) 蘇文四學士는 북송대 蘇軾의 문하에서 인정받고 천거된 黃庭堅, 秦觀, 晁補之, 張耒를 가리킨다.

들에게 대종(大鍾)을 하사하고 술 마시기 내기를 하여 진 사람에게 별주 두 치(卮)를 마시게 하였다.⁴³ 조선 1406년에도 태상왕이 왕에게 대치(大卮)와 대배(大杯)에 별주를 주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⁴⁴ 치는 원래 굴치(屈卮)라는 명칭에서 온 것이며, 몸체 한쪽에 손잡이가 달린 형태의 술잔으로 송대 황실의 어연(御宴)에서 사용되었다.⁴⁵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 소장된 <청동 발>이 치의 형태이다. 이 <청동 치>는 높이 7.6cm, 입지름 14.9cm로 거의 발에 가까운 크기이다(도 14). 종은 고족배를 의미하는 기종으로 대종은 고족배 중에서 크기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상감 운봉문 고족배>(덕수5848)나 고려청자박물관 소장 <청자상감 운학문 고족배>는 일반적인 고족배보다 1.5배 정도 큰 경우이다(도 15).



도 16. 청자 각배, 고려, 길이 25.8cm, 입지름 6.0cm, 국립중앙박물관(동원1265)



도 17. 觶와 豐 도해, 『世宗實錄』五禮 軍禮序例 射器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 각배>도 매우 특이한 형태로 드문 예이다. 크기가 길이 25.8cm, 입지름 6.0cm로 일반 잔의 용량보다 3~4배 정도 큰 것으로 추정된다(도 16). 이러한 형태의 각배는 궤(觥)이나 치(觥)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는데, 서궁이 환영연과 환송연에서 거궤(巨觥) 또는 대궤(大觥)에 술을 마셨다거나 안소(安沼, ?~1388)가 우왕에게 궤에 술을 부어 올렸다고 하여 왕실에서 사용된 특수한 형태의 잔이다.⁴⁶ 『세종실록』오례의 군례에서 활쏘기 승부에 진 사람에게 마시게 하는 별주잔으로 잔대(豊)와 함께 묘사되어 있다.⁴⁷ <청자 각배>도 『세종실록』오례의에 도해된 잔대와 같은 받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확인된

43 『高麗史』卷29, 世家 卷第29 忠烈王 9年 6月, “庚戌 以公主生辰, 宴于新殿, 王與公主, 各賜群臣大鍾, 爭飲, 負者罰兩卮.”

44 『太宗實錄』卷12, 太宗 6年 8月 30日 丙辰條.

45 揚之水, 『罰觥與勸盞』, 『收藏家』12期(北京: 北京市文物局, 2007), p. 40.

46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卷26, 燕禮 上節席, “至于三勸, 皆易巨觥, 酒盡乃退”; 同書, 卷26, 燕禮 門餞, “王親酌別酒一巨觥, 致辭而退”; 『高麗史』卷136, 列傳 卷第39 四十九 禡王 12年 10月, “……召拜謝, 酌觥進之.”

47 『世宗實錄』五禮 軍禮序例 射器, “豐, 以承罰爵, 形如豆, 大而卑”, “觥, 周禮考工記, 梓人爲飲器, 禮書大射立司正卒角觥, 立司射司馬遂射, 以觥飲不勝者.”



도 18. 은제 화형잔, 四川省 南江縣 교장 출토, 남송, 1209년, 높이 3.2cm, 입지름 10.6cm, 사천성남강현박물관



도 19. 청자 규화잔, 고려 12세기, 높이 3.6cm, 입지름 11.6cm, 밑지름 2.9cm, 개인 소장

사례는 없다. 각배는 『예기』, 『의례(儀禮)』 등의 유교 경전에서 용량이 일반 잔의 4배 정도의 별주용 잔으로 언급되어 있다.⁴⁸

현재 접시나 완으로 분류되는 청자 중에 음주기로 분류될 수 있는 예가 있어서 향후 재고가 필요하다. 중국 사천성(四川省) 남강현 교장에서 출토된 〈은제 화형 잔〉은 ‘가정(嘉定) 2년(1209)에 사고(司庫)에서 관리하는 은으로 제작된 청주용 산잔(散盞)’으로 확인되었다(도 18).⁴⁹ 〈은제 화형 잔〉은 높이 3.2cm, 입지름 10.6cm로 일반적인 잔보다 높이가 낮고 입지름이 넓은 편에 속한다. 이러한 형태의 잔을 산잔(散盞)이라고 지칭하고 청주를 마시는 잔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산잔은 반잔이나 대잔과 다르게 받침과 한 벌로 구성되지 않는 잔을 의미한다.⁵⁰ 고려에서도 청주는 법주와 함께 왕실의 모든 길례에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왕이 마시는 양온(良醞)이었다. 현재 고려청자 중에 송대 산잔과 형태나 크기가 유사한 기종은 접시나 완으로 분류되어 있다.⁵¹ 개인 소장인 청자는 완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크기나 화형잔의 형태에서 청주를 마시는 산잔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도 19).⁵² 청주는 약 12~20도 정도의 곡주의 일종이기 때문에 잔의 크기가 조금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서국은 고려에서 잔의 용량이 비교적 많은 편이라고 하여 잔의 크기가 기본적으로 송나라보다 컸던

48 楊之水, 앞의 글(2007), p. 37.

49 楊伯達 主編, 『中國金銀玻璃琺瑯器全集』 第2卷, 金銀器 二(石家莊: 河北美術出版社, 2004), p. 81, pl. 243. 교장에서 같은 양식의 화형잔이 9개가 확인되었으며, 잔의 구연 바깥 부분에 “輔家記”와 “兩司庫管銀打造到清酒都務散盞壹百隻, 共重壹百玖拾貳兩陸錢半, 嘉定二年十一月十五日, 銀匠輔顯之·李三一, 監官逮定·范世昌(두 개 사고에서 관리하는 은으로 청주용 산잔 100개를 만드니, 모두 중량이 192량 6전 반이다. 가정 2년(1209) 11월 15일 은장 보현지, 이삼일, 감독관 제정, 범세창)”이라는 명문이 확인되었다.

50 楊之水, 『宋元金銀酒器中的盤盞散盞與屈卮』, 『收藏家』 2期(北京: 北京市文物局, 2008), p. 60.

51 강대규·장성욱, 앞의 보고서(2015), p. 125. 접시는 74개 형식으로 분류되었는데, 이 중에 접시 29는 높이 3.7cm, 입지름 10.7cm, 밑지름 4.0cm로 산잔의 크기와 유사하다.

52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개성 부근 출토 〈은제 화형잔〉 세 점(덕수150, 덕수807, 덕수4821)은 크기와 형태로 볼 때, 청주를 마시는 산잔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것으로 보인다.⁵³

주기의 조합은 연례의 분위기나 술의 종류에 따라서 시기별로 변화를 보인다. 청자 주기의 조합이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시기는 원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고려 후기이다. 충렬왕대를 기점으로 원 황실의 영향을 직접 받으면서 새로운 술과 주기가 유입되었고 연례 문



도 20. 송 휘종, 문회도(부분), 송, 328.0×126.0cm, 국립고궁박물관(선은 필자)

화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고려 중기의 왕실 연례 모습은 송대 〈문회도(文會圖)〉를 참고해 볼 수 있다. 휘종과 신하들의 연회는 야외 정원에서 열렸으며, 방형 탁자에는 승반을 갖춘 주자 두 개, 잔좌(盞座)가 불룩하게 올라온 잔받침과 함께 술잔 열 개가 놓여 있다(도 20). 〈문회도〉에 묘사된 주기는 주자와 대잔(臺盞)이 한 벌로 구성되는 조합이며, 11세기부터 송 황실에서 고려 왕실에 예물로 전해지거나 고려에서 송이나 몽고 장수에게 선물로 주기도 하였다.⁵⁴ 고려 12, 13세기의 청자 주기는 대체로 송·금대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유행에 따라서 승반을 갖춘 주자와 반잔(盤盞), 대잔 등의 형태로 제작되었다.⁵⁵

충렬왕대부터 원 황실의 영향으로 왕과 공주가 함께 연례를 개최하거나 몽고식 연회인 보르차연(孛兒剌宴)이 열리고 몽고 여인들이 쓰는 고고관(姑姑冠)을 쓰고 연회를 여는 등 변화를 볼 수 있다.⁵⁶ 공민왕 2년(1353)에 열린 보르차연은 5,140여 필의 포로 만든 꽃과 사치스러운 물건들이 장식된 모습으로 묘사되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매우 화려하고 이국적인 장면이 연출되었다.⁵⁷ 14세기 초 일칸국(Il-Khanate)의 궁정에서 열린 화려한 몽고식 연회를 베를린국립도서관 소장 『디에즈 앨범(Diez Album)』에 포함된 삽화나 톱카프궁전박물관(Topkapi Saray Museum) 소장 『자미 알 타와리크(Jāmi' al-tawārīkh)』의 삽화에서 볼 수 있다. 왕좌에 나란히 앉은 왕과 왕비의 모습과 고고

53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卷30, 器皿 1 盤盞, “盤盞之制, 皆似中國, 惟淺深而鉅斂, 舟小而足高, 以銀爲之, 間以金塗, 鏤花工巧, 每至勸酒, 則易別杯, 第量容差多耳。”

54 『高麗史』卷9, 世家 卷第9 文宗 26年 6月; 同書, 卷9, 世家 卷第9 文宗 34年 7月; 同書, 卷23, 世家 卷第23 高宗 18年 12月.

55 楊之水, 『臺盞與盤盞』, 『奢華之色—宋元明金銀器研究』第三卷(北京: 中華書局, 2011), pp. 6, 15. 대잔은 잔을 놓는 잔좌가 불룩하게 나온 형태의 받침과 잔을 의미하며, 반잔은 잔을 놓는 잔좌가 평평하게 반(盤) 형태로 제작된 받침과 잔을 의미한다.

56 『高麗史』卷89, 列傳 卷第 2 后妃 淑昌院妃金氏, “……元皇太后, 遣使賜妃姑姑, 姑姑蒙古婦人冠名, 時王有寵於皇太后故, 請之. 妃戴姑姑, 宴元使, 宰樞以下, 用幣賀妃.”

57 『高麗史』卷38, 世家 卷第38 恭愍王 2年 8月, “乙巳 設孛兒剌宴于延慶宮, 王及公主與焉.”



도 21. 몽골왕과 왕비의 즉위식(원은 필자), 14세기 1/4분기, 『자미 알 타와리크(Jāmi' al-tawārīkh)』, 일칸국(Il-Khanid), 타브리즈(Tabriz), 베를린국립도서관(Diez A fol. 70, S. 21)



도 21-1. 도 21의 포도주가 담긴 고족배의 모습

관을 쓴 여인들과 남자들이 열을 맞춰서 앉아 있고 손에는 포도주잔, 과일, 꽃을 들고 있다 (도 21).⁵⁸

충렬왕대에 연례 문화가 변하기도 하지만 설행 횟수가 132회로 급증하는 것은 원 황실 공주와의 혼인으로 인한 왕권 강화의 측면을 주목할 수 있다. 빈번하게 열리는 연례에는 이전에 없었던 포도주, 동락(潼酪), 소주라는 새로운 술과 이에 적합한 주기가 몽고와 원 황실에서 전래되었다. 동락은 고종 18년(1231)에 몽고의 장수 살리타이가 왕정(?~1234)에게 대접한 말 젖을 발효시킨 몽고의 전통주인 마내주(馬奶酒)이다.⁵⁹ 포도주와 마내주는 원 황실의 각종 연례와 제사 등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황제가 하사품으로 사용하는 귀한 술이었다.⁶⁰ 원 황제나 태후가 고려 왕실에 포도주를 하사한 기록은 충렬왕대인 1285년부터 1308년까지 여섯 번 정도 확인된다.⁶¹ 개성 일대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원대 자주요산 <내부(內府)명 매병>이나 <백지흑화 사이병> 등은 포도주, 소주, 마내주와 같은 원 황실용 어주의 저장 용기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영국박물관 소장 <백지흑화 사이병>(1927.0217.1)에는 ‘좋은

포도주 한 병[好葡萄酒一瓶]’이라는 의미의 파스파문자가 쓰여 있어서 포도주병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약 11점의 개성 출토 원대 사이병도 포도주를 담은 용기로

58 Linda Komaroff and Stefano Carboni, *The Legacy of Genghis Khan: Courtly Art and Culture in Western*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02), pp. 75–83. 『자미 알 타와리크(Jāmi' al-tawārīkh)(集史)』는 14세기 초에 라시드 알딘 하마다니(Rashid-al-Din Hamadani, 1247~1318)가 저술한 최초의 세계사이자 몽골 일칸국의 문학 및 역사서이다.

59 『高麗史』卷90, 列傳 卷第3 宗室 淮安公 王挺; 張智鉉, 『韓國外來酒流入史研究』(서울: 修學社, 1987), pp. 22–24.

60 楊印民, 『蒙元時期的葡萄酒和馬奶酒』, 『歷史教學問題』第4期(2007), pp. 76–78.

61 『高麗史』卷30, 三十 世家 忠烈王 11年 8月; 同書, 卷31, 世家 忠烈王 22年 3月; 同書, 卷31, 世家 忠烈王 23年 3月; 同書, 卷31, 世家 忠烈王 24年 9月; 同書 卷32 世家 忠烈王 28年 2月; 同書 卷32 世家 忠烈王 34年 2月.

고려에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도 22).⁶²

새로운 술의 유입과 함께 고족배(高足杯), 옥호춘병, 이(匜), 용두잔(龍頭盞) 등이 청자 주기로 등장하였고 문헌기록에서도 이전에 보이지 않던 주기의 명칭이 확인된다. 먼저, 종(鍾)은 1262년(원종 3)부터 1313년(충선왕 5)까지 고려 왕실에서 몽고와 원 황실에 보내거나 원 황실이 고려에 하사한 금은제 기명에서 확인된다.⁶³ 『고려사』에 금종(金鍾), 은종(銀鍾), 주종(酒鍾), 대종(大鍾) 등 다양한 명칭으로 기재되었으며, 고족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⁶⁴ 14세기 초 일칸국의 화려한 몽고식 연회에서 왕과 왕비가 모두 오른손에 고족배로 보이는 잔을 들고 있고 그 안에는 선명한 붉은빛의 포도주가 담겨 있다(도 21-1). 고려 후기에 제작되는 상감청자 고족배는 삽화의 모습처럼 포도주를 마시는 잔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족배는 몽골제국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주기로서 특별한 의미의 선물로 인식되었다. 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 소장된 『샤나마(Shahnama, 王書)』의 삽화에서 일칸국의 통치자가 받은 세 점의 금제 고족배가 매우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⁶⁵

삽화의 왼쪽 하단에 붉은색 탁자 위에 고족배, 옥호춘병, 발 등이 놓여 있어서 주기의 구성을 볼 수 있다.⁶⁶ 고족배가 포도주를 마시는 음주기라면 옥호춘병은 포도주를 따르는 짐주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 후기에 종과 함께 ‘호병(胡瓶)’이라는 새로운 명칭의 기종이 등장한다. 호병은 충렬왕과 공주가 1294년과 1296년에 원 성종에게 바치는 기명 중에 포함되어 있으며, 은호병(銀胡



도 22. 백지흑화 운룡문 사이병, 개성 부근 출토, 원, 자주요, 높이 36.5cm, 입지름 6.8cm, 밑지름 10.6cm, 국립중앙박물관(역수 2630)

62 김윤정, 「한반도 유입 중국 磁州窯系 瓷器의 양상과 그 의미」, 『야외고고학』 39(2020), pp. 54-66.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자주요산의 '內府'명매병 2점, 사이병 11점, 공작남유매병 3점 등이 소장되어 있으며, 대부분 개성 부근 출토품으로 전한다.

63 『고려사』에서 금은제 종과 관련된 기록은 원종 3년(1262), 5년(1264), 10년(1269), 11년(1270), 충렬왕 19년(1293), 20년(1294), 22년(1296), 충선왕 3년(1311), 5년(1313)에 확인된다.

64 湖北省考古研究所, 『梁庄王墓』(北京: 文物出版社, 2007), pp. 73-79. 명초 변왕인 梁莊王 朱瞻垔(1411~1441) 무덤에서 출토된 고족배의 금제 뚜껑에서 종의 뚜껑[蓋]이라는 명문이 확인되었다. 명문은 '承奉司 正統二年造 金鐘蓋四兩九錢'이며, '승봉사에서 정통 2년(1437)에 4량 9전의 금으로 종의 뚜껑을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65 Anthony Cutler, "The Enduring Present: gifts in Medieval Islam and Byzantium," *Gift of the Sultan-The Arts of Giving at the Islamic Courts*(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1), p. 79, pl. 71.

66 http://orient-digital.staatsbibliothek-berlin.de/receive/SBBMSIllustration_illustration_00000281 (베를린국립도서관 홈페이지) 참조.



도 23. 청자상감동채 용문 병, 고려 14세기, 높이 38.9cm, 호림박물관



도 24. 몽골왕과 왕비의 즉위식 세부, 1330년, 『자미 알 타와리크(Jāmi' al-tawārīkh)』, 일칸국[Ill-Khanid], Tabriz, 톱카프 궁전 박물관

瓶), 누은호병(鏤銀胡瓶) 등의 명칭에서 금은기였음을 알 수 있다.⁶⁷ 호병(胡瓶)은 호병(壺瓶)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기록이 확인되어서 옥호춘병을 의미하는 주기(酒器)임이 밝혀졌다.⁶⁸ 문헌기록 뿐만 아니라 강진 삼흥리요지 출토 〈호병(胡瓶) 도기편〉과 선문대학교박물관 소장 〈분청사기상감 모란문 호병(胡瓶)명 병〉도 모두 옥호춘병 형태이다.⁶⁹ 옥호춘병은 고려 중기부터 청자로 제작된 기종이지만 고려 후기에 새로운 양식의 금은제 옥호춘병이 유입되어서 청자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호림박물관 소장 〈청자상감 동채용문 병〉은 높이가 38.9cm의 대형 옥호춘병으로, 몸체에 네 면에 용문이 배치되고 그 배경에 연화당초문이 구성되었다. 〈청자상감동채 용문 병〉은 문양 구성도 새롭게 몸체 바탕에 금속기에 사용되는 어자문이 뾰뚱하게 상감되고 목 부분에 다섯 개의 문양대가 층층이 구성되는 점에서 금속기를 모본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도 23).⁷⁰ 1330년에 제작된 톱카프 궁전 박물관 소장 『자미 알 타와리크(Jāmi' al-tawārīkh)』의 몽고 통치자의 즉위식 삽화에 묘사된 금은제 옥호춘병에서 여러 층으로 구획된 문양 구성을 볼 수 있다(도 24).⁷¹

상감청자 이(匜)와 용두잔(龍頭盞)도 원제국의 금은제 주기를 모본으로 제작된 새로운 기종이다. 이는 구연의 주구(注口) 아래에 고리를 부착하고 용두잔은 용의 입에 구멍을 내어 고리를 매달아서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휴대용 주기이다.⁷²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상감 물가풍경문 이〉

67 『高麗史』 卷31, 世家 卷第31 忠烈王 20年 4月; 同書, 卷31, 世家 卷第31 忠烈王 22年 11月.

68 謝明良, 「關於玉壺春瓶」, 『陶瓷手記』(臺北: 石頭出版, 2008), pp. 37-44[『故宮文物月刊』 291(2007)에 元載].

69 국립광주박물관 외, 『강진 삼흥리요지Ⅱ』(광주: 호남문화재연구원, 2004), p. 150, pl. 297.

70 호림박물관 소장 〈청자상감 용문 병〉과 유사한 유형의 병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덕수5231, 구입1037), 시카고미술관(1910.28),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71 J. M. Rogers, *The Topkapi Saray Museum : The Albums and Illustrated Manuscript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86), pp. 65-69, pl. 43, 44.

72 揚之水, 「元代金銀酒器中的馬盃和馬杓」, 『中國歷史文物』 第3期(2008), pp. 24-29.

는 원대 금속기처럼 부착된 고리는 없지만 입지름이 20.5cm로 비교적 큰 편에 속한다(도 25). 용두잔은 13세기 말부터 14세기경에 상감청자로 제작되었으며, 금은제 용두잔과 달리 용두에 고리를 달 수 없는 형태이다(도 26). 고려 후기에 상감청자 용두잔은 러시아 토볼스크 출토 킵차크 칸국의 〈은제 용두잔〉, 내몽고 적봉시(赤峰市) 오길향(敖吉鄉) 원대 교장 출토 〈은제 용두잔〉과 같은 금속기를 모본으로 제작되었다(도 27).⁷³

고려 후기에 원 제국에 편입되면서 포도주와 함께 고죽배, 옥춘병, 이, 사이병 등의 주기가 새롭게 등장하였던 상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주기의 조합은 헤라트 티무르 왕조 통치자였던 술탄 후세인 베이카라(Husayn Bāyqarā, 1438~1506)의 궁정 연회 장면에서 볼 수 있다(도 28). 삽화 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앉은 두 명의 시종을 볼 수 있는데, 한 명은 사이병(四耳瓶)과 유사한 병을 안고 이(匜)처럼 한쪽에 뿔죽한 주구(注口)가 있는 그릇에 술을 따르고 있다. 앞쪽에 시종은 그릇의 뿔죽한 주구를 통해서 주둥이가 좁은 옥호춘병에 포도주를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도 28-1). 이러한 주기 구성은 원대 1269년 섬서성(陝西省) 포성현 장안답불화(張安答不花) 부부 묘와 1276년 무덤 벽화에서도 확인되며, 몽골제국에 편입된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⁷⁴ 개성 부근에서 출토되는 원대 자주요산 〈백지흑화 사이병〉, 상감청자 이(匜)와 옥호춘병, 고죽배가 고려 후기에 보이는 새로운 주기의 조합이었음을 알 수 있다(도 28-2). 고려가 몽골제국으로 편입된 이후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주기가 유입되었고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청자 주기의 조합과 용도도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상황을 볼 수 있다.



도 25. 청자상감 물가풍경문 匜, 고려 14세기, 높이 5.8cm, 지름 20.5cm, 국립중앙박물관(개성14)



도 26. 청자상감 수금쌍어문 용두잔, 고려 14세기, 높이 3.4cm, 입지름 7.1cm, 세이카도보코미술관



도 27. 은제 용두잔, 러시아 토볼스크 출토, 킵차크 칸국, 13~14세기, 높이 4.2cm, 입지름 10.8cm, 에르미타주 미술관

73 邵國田 主編, 『敖漢文物精華』(赤峰市: 內蒙古文物出版社, 2004), p. 203.

74 楊哲峰, 『從蒲城元墓壁畫看元代匜的用途』, 『中原文物』4期(1999), pp. 71-74.



도 28. 술탄 후세인 베이카라(1438~1506)의 궁정 연회, 『부스탄(Bustan)』,
Sa'di의 시집, 페르시아, 헤라트, 1488~1489, 이집트국립도서관



도 28-1. 도 28의 술 따르는 장면
세부



도 28-2. 고려청자의 연출 장면(필자 편집)

V. 맺음말

고려 왕실 연례에 사용된 주기의 제작 배경 및 조형적 상징성, 시기별 조합과 용도 등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왕실에서 설행된 연례는 일종의 통치 행위로서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이러한 연례의 성격이 청자 주기도 영향을 미쳤다. 주기의 조형에 왕권과 관련된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시각화하는 사례는 고려 청자에서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연례의 설행이 급증했던 예종대와 충렬왕대를 기점으로 연례 문화의 변화와 함께 청자 주기의 양상도 함께 변하는 상황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청자 주기의 조형에 연례 설행의 목적인 국왕의 위상과 권위를 상징하는 요소가 반영된 점이다. 청자 주기의 조형에 도교, 유교, 불교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국왕에 대한 송축(頌祝)과 충성, 불로장생을 기원하고 태평성대를 꿈꿨던 고려 왕실의 염원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청자 주기는 왕실의 대외 관계와 유행에 따라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고려 왕실이 몽골제국에 편입되는 시기에 주기의 조합과 용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볼 수 있었다. 고죽배, 이, 용두잔, 옥호춘병 등 새로운 양식의 청자 주기는 공간적, 지리적으로 연결될 것 같지 않은 고려와 몽골제국의

칸국을 연결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현전하는 고려 청자 중에 주거나 다기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좀 더 실질적인 문제인 용처나 용례를 밝히는 연구는 매우 미진했다. 본고는 조형적으로 일반 그릇과 차별화되는 주기의 형태에 주목하여 왕실 연례 문화와의 관계를 조명하였지만 고려 청자의 용례를 연구하는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앞으로 문화사적 관점에서 청자의 사용처와 사용례를 밝히는 기점이 되어 청자 연구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사료】

『高麗史』

『澹山雜識』

『東國李相國集』

『東文選』

『東人之文四六』

『補閑集』

『宣和奉使高麗圖經』

『世宗實錄』

『營造法式』

『甯城集仙錄』

『元史』

『太宗實錄』

『太平廣記』(『欽定四庫全書』本)

『太平御覽』

『破閑集』

【국문】

강대규·장성욱, 『강진 사당리 발굴조사 보고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15.

고연희, 「忠을 상징한 영모화초-葵花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와 예술』 21, 2017.

국립광주박물관 외, 『강진 삼흥리요지Ⅱ』, 광주: 호남문화재연구원, 2004.

김병인, 「고려 예종의 통치행위에 나타난 유형적 특징과 그 정치적 배경」, 『역사와 경계』 79, 2011.

김운정, 「고려말·조선초 명문청자 연구」,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_____, 「한반도 유입 중국 磁州窯系 瓷器의 양상과 그 의미」, 『야외고고학』 39, 2020.

신 숙, 「고려시대 '찬란한' 금속공예: 보스턴미술관 소장 <은제도금 주자와 승반>」, 『미술사학연구』 302, 2019.

이정노, 「고려중기 당악정재의 유입 배경과 도교적 양상」, 『한국체육학회지』 59, 2020.

임주탁, 「고려 후기 궁중 문화와 고려가요」, 『정신문화연구』 21-4, 1998.

한정수, 「고려시대 국왕 잔치의 양상과 그 성격」, 『역사교육』 118, 2011.

【중문·일문】

國立歴史民俗博物館, 『東アジア中世海道』, 東京: 毎日新聞社, 2005.

洛陽市第二文物工作隊, 「洛陽邙山宋代壁畫墓」, 『文物』 第12期, 北京: 文物出版社, 1992.

林梅村, 「元朝重臣張瑄與保定出土元代宮廷酒器」, 『故宮博物院院刊』 第3期, 2009.

- 謝明良,「關於玉壺春瓶」,『陶瓷手記』,臺北:石頭出版,2008.
- 邵國田 主編,『敖漢文物精華』,赤峰市:內蒙古文物出版社,2004.
- 楊林中,「山西屯留縣康庄工業園區元代壁畫墓」,『考古』12期,2009.
- 楊伯達 主編,『中國金銀玻璃琺瑯器全集』第2卷 金銀器 二,石家莊:河北美術出版社,2004.
- 楊印民,「蒙元時期的葡萄酒和馬奶酒」,『歷史教學問題』第4期,2007.
- 楊之水,「罰觥與勸盞」,『收藏家』12期,北京:北京市文物局,2007.
- _____,「宋元金銀酒器中的盤盞散盞與屈卮」,『收藏家』2期,北京:北京市文物局,2008.
- _____,「元代金銀酒器中的馬盃和馬杓」,『中國歷史文物』第3期,2008.
- _____,「銀龜遊蓮葉雙層盞」,『奢華之色—宋元明金銀器研究』第三卷,北京:中華書局,2011.
- _____,「臺盞與盤盞」,『奢華之色—宋元明金銀器研究』第三卷,北京:中華書局,2011.
- 楊哲峰,「從蒲城元墓壁畫看元代匱的用途」,『中原文物』4期,1999.
- 張楠·賈陳亮,「蒙元后妃宴禮探析」,『內蒙古民族大學學報』第4期,2012.
- 河北省文物研究所,『宣化遼墓』,北京:文物出版社,2001.
- 湖北省考古研究所,『梁庄王墓』,北京:文物出版社,2007.

【영문】

- Cutler, Anthony. "The Enduring Present: gifts in Medieval Islam and Byzantium," *Gift of the Sultan—The Arts of Giving at the Islamic Court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1), pp. 71, 79.
- Rogers, J. M. *The Topkapi Saray Museum : The Albums and Illustrated Manuscript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86.
- Kim, Yunjeong. "The Influence of Taoism on Goryeo Celadon," *JOURNAL OF KOREAN ART & ARCHAEOLOGY* 6, Seoul: National Museum of Korea, 2001.
- _____. "The Emergence and Iconography of Seosu (Auspicious Beasts) in the Twelfth-century Goryeo Celadon,"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24, no. 1, Seo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21.
- Komaroff, Linda and Stefano Carboni. *The Legacy of Genghis Khan: Courtly Art and Culture in Western*,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02.
- Chida-Razvi, Mehreen. *Power and Politics of Representation: Picturing Elite Women in Ilkhanid Painting*,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1.

【데이터베이스】

- 故宮博物院 (<https://www.dpm.org.cn/collection/paint/234629.html>)
- Qalamos (http://orient-digital.staatsbibliothek-berlin.de/receive/SBMSIllustration_illustration_00000281)

Sovereignty and Wine Vessels: The Feast Culture of the Goryeo Court and the Symbolic Meaning of Celadon Wine Vessels

Kim Yun-jeong*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eladon wine vessels and royal banquets by focusing on their unique forms. It explores the symbolism in their forms and designs and the changes that took place in the composition of these vessels. By examining the royal annals in *Goryeosa* (The History of the Goryeo Dynasty), the relation of celadon wine vessels and royal banquets is examined in terms of the number of banquets held in the respective reigns of the Goryeo kings, the number of banquets held by type, and the purpose of holding them. A royal banquet was a means of strengthening the royal authority by reinforcing the hierarchy and building bonds between the king and his vassals. It was also an act of ruling that demonstrated the king's authority and power through praise of his achievements and virtues. Royal banquets were held most often during the reigns of King Yejong (r. 1105–1122), King Uijong (r. 1146–1170), King Chungnyeol (r. 1274–1308), and King Gongmin (r. 1351–1374).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here to the changes in the types and forms of celadon wine vessels that occurred starting in the reigns of King Yejong and King Chungnyeol, which is also the period in which the number of royal banquets increased and royal banquet culture evolved.

The king and his subjects prayed for the king's longevity at royal banquets and celebrated peaceful reigns by drinking and performing various related acts. Thus, the visual symbolism of vessels for holding, pouring, or receiving alcohol were emphasized. Since the manner of drinking at a banquet was exchanges of pouring and receiving alcohol between the king and his subjects, the design of the ewers and cups had a significant visual impact on attendees. It can be seen, therefore, that decorating wine vessels with Daoist motifs such as the immortals, *luan* (a mythological bird), turtle dragons, fish dragons, and gourd bottles or with Confucian designs like hibiscus roots was intended as a visual manifestation of the purpose of royal banquets, which was to celebrate the king

* Professor in the Division of Cultural Heritage Convergence, Korea University

and to pray for both loyalty and immortality.

In particular, the Peach Offering Dance (獻仙桃) and Music for Returning to the Royal Palace (還宮樂), which correspond to the form and design of celadon wine vessels, was examined. The lyrics of the banquet music embodied wishes for the king's longevity, immortality, and eternal youth as well as for the prosperity of the royal court and a peaceful reign. These words are reflected in wine vessels such as the *Celadon Taoist Figure-shaped Pitcher* housed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the *Bird Shaped Ewer with Daoist Priest* in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only Goryeo celadon wine vessels reflect this facet of royal banquet culture in their shape and design.

The composition of wine vessel sets changed depending on the theme of the banquet and the types of liquor. After Goryeo Korea was incorporated into the Mongol Empire, new alcoholic beverages were introduced, resulting in changes in banquet culture such as the uses and composition of wine vessel sets. From the reign of King Chungnyeol (r. 1274–1308), which was under the authority of the Yuan imperial court, royal banquets began to be co-hosted by kings and princesses, Mongolian-style banquets like *boerzhayan* (孛兒扎宴) were held, and attendees donned the tall headdress called *gugu* worn by Mongol women. During the reign of King Chungnyeol, the banquet culture changed 132 banquets were held. This implies that the court tried to strengthen its authority by royal marriage with the Yuan court, which augmented the number of banquets. At these banquets, new alcoholic drinks were introduced such as grape wine, *dongnak* (潼酪), and distilled liquor. New wine vessels included stem cups, pear-shaped bottles (*yuhuchunping*), *yi* (匱), and cups with a dragon head. The new celadon wine vessels were all modeled after metal wares that were used in the Yuan court or in the Khanates. The changes in the celadon wine vessels of the late Goryeo era were examined here in a more specific manner than in previous studies by expanding the samples for the study to the Eurasian khanates. With the influx of new types of wine vessels, it was natural for the sets and uses of Goryeo celadon wine vessels to change in response. The new styles of celadon wine vessels linked the Goryeo court with the distant Khanates of the Mongol Empire.

This paper is the beginning of a new study that examines the uses of Goryeo celadon by illuminating the relations between royal banquets and these unique celadon wine vessels that are stylistically different from everyday vessels. It is to be hoped that more studies will be conducted from diverse perspectives exploring both the usage of Goryeo celadon vessels and their users.

Keywords: Wine Vessel, Goryeo Celadon, Sculptural Ewer, Sovereignty, Stem Cup, *Yi*, *Hobyeong* (Pear-shaped Bottle), *Jong* (Stem Cup)